

##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계약 요인 분석

###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ance Transfer recipients Constraints Analysis

김명주, 김정련\*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Myong-Ju Kim, Jeong-Ryeon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계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부문 보존회에 등록되어 있고,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용부문 보존회 3단체를 선정하여 1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반(半)구조화된 심층면담이 적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수계약요인을 개인적, 구조적, 대인적 제약으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수계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입법에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서론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제 2조 2항)을 말하며 이중 중요한 것을 지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라 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전수자→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4단계로 되어 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전수자→이수자 최소 3년, 이수자→전수조교 약 15년, 전수조교→보유자 약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전승구조는 보유자가 되기까지의 능력에 따른 단계별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 도중에 전승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장치이다[1].

전통춤을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가 확연히 줄어들어 중요무형문화재의 많은 보존단체들이 전승자 확보가 어려워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3]. 따라서 정책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보존의 주체인 전승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전승자의 이수계약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전승자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지정 목적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재창조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문적으로 학술적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 필요성 및 의미가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부문 보존회에 등록되어 있고,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화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용부문 보존회 3단체를 선정하여 1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이다. 면담에는 기본적으로 반(半)구조화된 심층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개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radley(1980)가 사용한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먼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전사한 다음, 해당되는 내용을 집락화 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로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다음, 결과를 분석, 도출하였다.

## 4. 연구의 타당도

본 연구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전문가회의는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면접의 범위 및 내용, 자료 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 Ⅲ.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 제약 요인

### 1. 개인적 제약

보존회에 등록된 대다수의 회원들은 현재 전공분야(무용)에서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전수자들은 가족의 도움으로 개인적 제약요인을 해결하며 이수를 위해 참아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말에 늦은 시간에 모여 하기 때문에 그때는 1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재충전을 해야 할 시간에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

친다.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겠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말 학원은 차 운행이 하지 않아서 직접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남편이 대신 해준다.(곽00 면담 중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수업시간에 녹초가 되어 힘들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극복 및 참여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내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에 비해 그 내용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김00 면담 중에서)

### 2. 구조적 제약

이수시험 자격조건은 회원등록 후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수시험자격을 받는 것조차도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이수하는데 까지 8년~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수까지의 긴 시간을 무용전승자들은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5년이면 이수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간이 길어서 힘든 것은 없었다.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만의 춤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이수기간이 긴 사람은 그 기간만큼 춤을 잘 추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수하는데 9년이 걸렸고 우리 단체는 최소 6-7년은 걸린다. 전공자들이라 5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윤00 면담 중에서)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가량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그 기간을 보시고 움직이는 게 우리 단체에서는 6~7년이 최소. 그래도 5년이나 3년만 되어도 무용을 계속 해오던 전공자들이라 이수자 자격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정00 면담 중에서)

전수환경에는 불만이 없었으나 전수과정에서의 수업 진행에 대한 효율성에 불만이 있었다.

먼 거리를 연습을 위해 참석하는데 실제적인 연습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전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 전수날짜에 이루어지는 연습량의 부족...회원이 많고 춤의 종류가 많은 관계겠지만 딱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끝남은 아쉽다.(허00 면담 중에서)

### 3. 대인적 제약

회원 상호간의 사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보존회 내부에서 형성되어 있는 파벌과 줄서기는 크나 큰 제약 요소가 되고 있었다.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친분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춤추는데 빼고 친목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것은 없다.(유00 면담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의견을 주고받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선생님이 두 분인 것 밖에 없다. 그것은 회원들이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선생님들이 해결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허00 면담 중에서)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윤00 면담 중에서)

## IV.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수제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개인적 제약으로 가정생활과의 마찰과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른 육체적 피로감이 있었다. 둘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구조적 제약으로 전수과정기간의 너무 긴 시간과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시간의 운용, 이동에 투자한 시간에 따른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연습의 부족감이었다. 셋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대인적 제약은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만남의 한정된 시간이 신뢰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전수교육자의 교육내용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선생님들의 불편한 신경전은 수업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본다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수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입법에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김선영,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정책 및 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 대학교, 2004.
- [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2010, 1, 26.
- [3] 최미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6권, 제2호, pp.715-725, 2007.